

# 판화로 엮보는 부처님 세계

## 치악산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판화로 보는 불화의 세계' 기획특별전 개최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 세계 각국의 불화판화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악산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6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불화판화들을 한 자리에 모아 '판화로 보는 불화의 세계' 전시를 7월 15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의 불화판화 80여 점이 전시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작년에 열린 '고려불화' 전에 자국을 받아, 박물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판화 500여 점을 특별히 엄선해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 판화불화는 민중들이 각 집안에서 예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나라의 민중 생활불교를 살펴보고, 각국의 판화불화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8대보살 판화와 6지장보살판화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화판화의 종류와 수량이 극히 적다. 이 작품들은 강희 42년(1703)에 제작된 북한 묘향산 보현사 불화판화로 한국에서 제작한 보기 드문 불화판화이다. 한선학 관장은 한국에 불화판화가 적은 것에 대해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해 민중의 생활불교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예배용으로 쓰이던 판화불화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불화판화 중 '양유관음도' 역시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 중



백산개다라니경



묘향산 보현사 불화판화



금강산사대찰전도

하나다. 이 작품은 당나라 최고 인물 화가인 염필본이 제작한 '양유관음'을 목판으로 제작해 판화로 찍어낸 것이다. '양유관음도'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작품이다.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작품들도 다수 선보인다. 청나라道光 26년(1846)에 제작된 '오대산성경전도'는 전에 찍힌 대형불화판화

로,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금강산사대찰전도'(1899)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사대찰전도'는 불교 성지인 금강산의 4대 사찰을 중심으로 금강산 전경을 판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경주대 정병모 교수는 "19세기 말에는 금강산 그림이 판화로 제작될 정도로 금강산 기행의 수요가 급증했다. 작품은 '오대산성경전도'와 같은 중국의 판화에 영

향을 받아 안내지도와 같은 전도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문수신앙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대산 관련 목판 중에는 조유지(操浴池)에서 문수보살이 조나라 왕을 목욕시켜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조유지는 문수보살이 내려와 목욕

향을 받아 안내지도와 같은 전도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문수신앙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대산 관련 목판 중에는 조유지(操浴池)에서 문수보살이 조나라 왕을 목욕시켜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조유지는 문수보살이 내려와 목욕

을 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삼국

유사)에는 지장 율사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을 진경하고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받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전한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중국 오대산 조유지 관련 목판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수동자가 세조를 씻겨 준 설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 불화판화가 다양하게 발달했을 엿볼 수 있다. 극락세계를 표현한 '태장계만다라판화', 지옥세계를 표현한 '16관경판화' 등은 마치 한 편의 만화책을 보는 듯하다. 이는 일본이 그만큼 민중에서 생활불교가 발달했음을 짐작케 한다. 티베트와 몽골은 이동이 간편히 하기 위해 비단이나 면에 찍은 불화판화들이 다수 등장해 유목민들의 불교생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강희2년(1663) 오삼계(吳三桂; 1612-1678)를 위해 공덕경으로 제작한 108권의 <백산개다라니경>은 티베트 경전과 한적 경전의 형태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경전으로 중국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귀한 사료다. 작품은 변상도 부분이 4장으로 연결돼, 맹화 형태를 지닌다. 중국 고판화 전문 학자이자 북경 수도도서관 부관장인 주심혜는 "중국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희귀본으로 티베트와 중국 불교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국보급의 귀중한 자료이다"고 평가했다.

한선학 관장은 "판화를 통해 불교의 신앙심을 고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033)761-7885

이은정 기자

###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⑤ 영화 미트 페어런츠 III

## 장인어른과 간호사 사위의 공업(共業)

오라기락 하는 날씨 탓에 봄은 언제 오다가 싶더니 어느덧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 이달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에 결혼식도 유난히 많다. 극장가에도 가족영화가 풍성하다. 영화 미트 페어런츠3 (Meet the Parents 3)는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동서고금을 넘어 똑 닮은 우리네 가정의 모습을 담아 재미를 더했다.



한다고 선언한다. 아니, 새로운 대부(大父)상을 외친다.

"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레그를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그레그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업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기에 탈이 나듯, 우리네 가정에서도 그랬다. 우리 아버지들은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도 가족들로부터는 멀어졌고, 소외됐다.

가족은 서로가 공통의 과업을 받고 또 받게 하는 업을 가지고

### 가족은 함께 공업 쌓고 또 풀어 가는 공동체

살아간다. 공동의 업을 지닌 평등한 집합체이다. 하지만 우리

다. 사위 그레그는 완벽한 가장(家長)으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전념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아이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완벽한 아버지 '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두 남매를 사립학교로 보낸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사립학교를 최고의 교육이라고 여기는 우리들 모습 그대로 말이다. 그는 두 아이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두 배로 늘리고, 투잡을 댄다. 그는 이제 너무 바빠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부인 팸(테리 폴로)은 자꾸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을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아빠의 잔소리에 아이들도 지쳐간다.

그가 완벽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버둥을 치면 질수록 그와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다. 마침내 그레그는 장인에게 당당히 대부(大父) 자리를 포기

는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그 짐을 지어줬다.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해 왔고 규정지었다. 가족은 공업(共業)중생이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장(家長) 혼자만의 숙제다 아니다. 공동의 업이고 몫이다. 아주 유능한 선장이 한 명 있다고 해서 항해가 안전한 것이 아니듯,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면 아버지는 막중한 부담도 짊어질 필요도 없고 소외될 일도 없다.

문득 아버지가 떠오른다. 한 집에 살아도 밥한 끼 함께하기 힘든 가족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번 5월에는 직접 만든 음식과 따뜻한 포옹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회성 행사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울컥하는 꼭 소리 내어 말해보자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 문화산책

#### '달빛에 걸린 부처님 바람이 되어'展

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현대적 시각으로 화폭에 담은 김옥연의 '달빛에 걸린 부처님 바람이 되어'展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3~8일 열린다. 김옥연은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 연꽃, 맹화, 동자승, 비천, 탐 등을 통해 자신의 구도적 정신인 선(禪)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 구현한다. 김옥연은 붓 대신 칫솔로 그림을 그려, 마치 마음자리를 닦아 모는 번뇌를 몰라지듯 단아하고 성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전통적인 회화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선보인다.

#### 제16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제16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5월 22일 열린다.

불교사진협회는 1995년 창립돼 현재까지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영상을 통해 불교교리를 실천해왔다. 불교사진협회는 이번 전시에서 '탐'을 주제로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담아냈다.

전시는 4월 29일~5월 3일 서울 동성동 예총회관갤러리(02)744-7871, 5월 4~7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 경내(02)993-3161~3, 5월 8~12일 조계사 경내(02)732-2115, 5월 17~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053)606-6114에서 열린다.

#### 칸타타 담마파다II

니르바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봉족기정 정기연주회 '칸타타 담마파다II'를 4월 29일 오후7시 30분 KBS홀에서 개최한다. 수준급 전문예술단체 서울그랜드합창단과 불자 전문성악인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소년소녀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칸타타 담마파다II'는 범정 스님이 번역한 <범구경>을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시조시인 서공식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대성이 70여 분의 대형 칸타타로 불교음악과 부처님 말씀을 융화시킨 새로운 공연이다. 공연은 최선용의 지휘로 음악감독 김의명 교수와 소프라노 심민정, 여창가곡 강원순, 무지컬배우 박철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02)718-4599

#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배려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밀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흥분해지고 자기가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